

박근혜가 바꿉니다 II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4대 실천과제>

- ▲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 ▲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
- ▲우리 교육의 경쟁력 제고 ▲배우고 싶은 것을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

「즐겁고 행복한 교육 만들기 8대 약속」

- 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으로 변화
- ② 교원 확충과 교사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교무행정지원 인력 확보
- ③ 대입부담의 대폭 감소와 대입혼란 방지
- ④ 교육비 부담 축소
- ⑤ 대학의 특성화·다양화를 지원하고 취업지원시스템 대폭 확충
- ⑥ 학벌사회 타파로 능력중심 사회 구현
- ⑦ 직업교육 강화로 산업별 전문인재 양성
- ⑧ 100세 시대 대비 평생학습체제 구축

□ 17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경선 후보는 대구 안일초등학교에서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 교육 만들기’ 라는 교육정책을 발표함.

○ 현재 우리의 교육현실은 지나친 경쟁과 입시위주로 변질되어 학생은 성적, 학부모는 사교육비, 교사는 교권 때문에 불행해 하고, 이에 더해 ‘학교 폭력’ 으로 더 힘들어 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교육이 오히려 계층 이동의 기회를 막고 있으며 또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평생교육시스템도 미흡하다고 지적되고 있음.

○ 박후보는 이 자리에서 “소질과 끼를 끌어내어 열정을 갖고 적성에 맞는 꿈을 찾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교육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하며, “교육이야말로 행복공동체를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정책의 으뜸이 되어야 한다” 강조함.

○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배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기 전에 바다를 꿈꾸게 해야” 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도와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고 밝힘.

- 박근혜 후보는 이러한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 교육’ 을 만들기 위한 실천과제로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 ▲우리 교육의 국제경쟁력 제고 ▲배우고 싶은 것을 언제든 배우는 평생학습체계 등 4가지를 제시하였음.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교육 만들기 실천과제>

실천과제	현재	미래
1.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경쟁과 입시위주 교육 •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 • 옆 사람과의 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 ▶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교육 ▶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교육
2. 공평한 교육의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지역별 교육 기회의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층 이동의 기회를 주는 희망 사다리 교육
3. 교육의 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떠나가는 유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생이 들어오는 국제경쟁력
4. 평생학습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장소·시간에 따른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세 시대에 맞는 누구나 어디서든 가능한 평생학습 보장

- 이러한 4대 실천과제를 토대로 ‘즐겁고 행복한 교육을 만들기’ 8대 약속을 제시하고, “오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한 교육,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행복한 나라를 꼭 만들겠다” 고 강조함.

즐겁고 행복한 교육 만들기 8대 약속

과제	약속	실천 방안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	1.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으로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학교 자율성 강화, 소질·적성 중심 교과과정 운영 • 소질·능력·적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개인 맞춤형 진로 컨설팅’ 제공 • 1인 1예술·1스포츠를 학교가 책임지고 제공하여 사교육비 경감 • 학교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및 상담치료 과정의 대폭 강화
	2. 교원 확충과 교사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교무행정지원 인력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교사 채용 확대로 학급당 학생수를 2017년까지 OECD 수준으로 맞춤. • ‘학교교육 통계관리 및 활용’을 통해 행정업무 부담 대폭 축소 • 학교별 교무행정지원인력 확충
	3. 대입부담의 대폭 감소, 대입혼란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는 학생부위주, 정시는 수능위주로 대학입시를 대폭 단순화 • 대입전형계획 변경시 3년전 예고 의무화 •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7.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산업별 전문인재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교육체제 내실화·전문화로 ‘꿈과 끼’를 살린 성공 지름길 만들기 • 재직 중 학위 취득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 국비 해외 유학기회 제공 • ‘산업기술 명장 대학원’과정 설치 유도
공평한 교육의 기회	4. 교육비 부담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 EBS방송을 태블릿 PC, 스마트 패드로 활용하는 체제 구축 •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 •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실질적 무료되도록 지원 • 소득연계 맞춤형 등록금 지원, 학자금 이자의 실질적인 제로화 추진, 대학 회계투명성 확대 등으로 등록금 인하 유도
	6. 학벌사회를 타파하여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직종에 요구되는 직무능력 표준화하여 제시 • 직무능력평가제 단계적 도입
교육의 경쟁력 제고	5. 대학의 특성화·다양화를 지원하고 대학의 취업지원 시스템 대폭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단위 및 학문단위 특성화 추진해 각 대학별 특화된 대학 유도 • 지방대학의 권역별 특성화로 전문분야 인재 양성을 적극지원 • 대학 재정지원을 과감하게 확대, OECD 평균 수준 GDP 대비 1% 수준 달성 • 대학별 취업지원시스템 구축 지원 대폭 확충
평생학습 체계 구축	8.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평생학습체제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취약계층, 경력단절 여성, 은퇴 이후 중·고령자 등 모든 국민의 평생교육체제를 강화 • 어르신 친화형 애플리케이션 보급으로 축적된 전문성과 인생경험 공유

※ 참고 활동

□ ‘책쓰는 선생님들’ 과 ‘꿈 프로젝트’ 담당 선생님들과 만나 ‘꿈과 끼’ 를 끌어내는 교육비전에 대한 의견을 나눔.

* ‘책쓰는 선생님들’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교육과정의 정착을 위해 초, 중, 고교 교사 8명이 “애들아, 창체와 놀자”의 책을 출판, 소수의 잘하는 학생들보다 대다수 평범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풀어내어 교육현장의 다양한 경험을 책으로 녹여낸 교육기부의 대표적 사례.

* ‘꿈 프로젝트’는 '학력 향상'과 '꿈 가꾸기'로 교육의 방향을 정하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맞

춤형 학습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재구성. 학생 중심의 자기주도적 꿈가꾸기 교육 활동을 전개. 모든 교사들을 수업전문가로 전환키로 하고 1:1멘토링제, 맞춤형장학수업, 1인 1연구대회 등의 역량제고 활동을 강화하여 6학년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35.2%의 향상(기초미달 0%)으로 2011년 대구 100대 교육과정 최우수교(안일초) 입상, 교육과학기술부 주최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교(안일초)로 선정

<별첨 : 교육정책 발표문>

기다려온 변화, 박근혜가 바꿉니다.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육에 대한 비전과 약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은 학습을 통한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도와주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저마다 타고난 소질과 끼를 끌어내고,
열정을 갖고 적성에 맞는 꿈을 찾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교육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꿈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몰두의 즐거움을 느낄 때,
우리의 교육현장에 행복이 넘치고,
학생들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창의적인 인재로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현실은 지나친 경쟁과 입시위주로 변질되었습니다.

학생은 성적 때문에,
학부모는 사교육비 때문에,
교사는 무너진 교권 때문에 모두가 불행합니다.
여기에 학교폭력 문제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교육이 오히려 계층이동의 기회를 막고 있고,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평생교육 시스템도 미흡합니다.

국민 여러분,

교육은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는 동시에 국가의 미래인재를 키워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이야말로 행복공동체를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정책의 으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교육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배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기 전에 바다를 꿈꾸게 해야 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도와주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 몰두를 하면, 수월성과 형평성이라는 교육의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실천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입시위주 교육에서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과도한 경쟁과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학생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행복교육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옆 사람과의 경쟁이 아니라,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둘째,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해야 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교육 기회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교육이 계층 이동의 기회를 주는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교육의 경쟁력도 높여야 합니다.

우리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창의적인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유학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다 많은 외국학생들이 유학을 올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배우고 싶은 것을 언제든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100세 시대에 맞는 평생학습체계를 만들어서,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연령대에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 박근혜가 바꾸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 다음 여덟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으로 바꾸겠습니다.

대학입시에 휘둘리는 초중등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해서,
학교마다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효과적으로 계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진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중학교 졸업 전까지 다양한 진로 및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학생의 소질과 능력,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개인 맞춤형 진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체능교육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1인 1예술과 1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예·체능교육을 학교가 책임지고 모든 학생에게 제공해서
예체능 사교육비 부담을 없애겠습니다.

학교폭력 방지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상담치료 과정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교원을 확충하고,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교무행정지원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가르치는 일에만 열중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인생 디자이너가 되어야 합니다.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수가 많으면 학생 한명 한명의 꿈과 끼에 맞는 교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신규교사 채용을 확대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2017년까지 OECD 수준에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너무나 많은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도록 ‘학교교육 통계관리 및 활용’ 방안을 입법화하여 통계·조사관련 공문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개별 학교에는 교육지원과 행정잡무를 담당할 교무행정지원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셋째, 대입부담을 대폭 감소시키고, 대입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입시를 대폭 단순화하겠습니다.

현재 대학전형의 수가 무려 3,000여개에 달해서 입시전문가도 전체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수시는 학생부위주, 정시는 수능위주로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입전형 수를 대폭 줄이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수시전형에서도

수능등급 자격요건을 두지 않도록 대학을 설득하고, 대학도 주요 대입전형계획을 변경할 때, 3년 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을 구축해서, 학생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 한 번만 원서접수를 하게 되면, 원하는 여러 대학에 자동으로 지원하게 되는 선진국형 대입지원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수능과 논술시험을 교과서 중심으로 출제하여,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교과서의 혁신이야말로 교육 개혁의 시작입니다.

교과서만으로도 학교의 기본 교육이 완성되는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과별 최고전문가가 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재미있고 친절한 이야기형 교과서를 개발하겠습니다.

EBS 방송을 태블릿 PC나 스마트 패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제도

구축하겠습니다.

공교육비 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위한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대학등록금 부담도 낮추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대학등록금이

실질적으로 무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득과 연계한 맞춤형 등록금을 지원하고,

학자금 이자의 실질적인 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대학의 회계투명성을 확대하여

대학의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다섯째, 대학의 특성화·다양화를 지원하고, 대학의 취업지원시스템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 특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각 대학별로 지역단위 특성화, 학문단위 특성화 등을 추진하여

특화된 대학으로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지방대학을 권역별로 특성화해서, 전문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학의 특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과감하게 확대해서

OECD 평균 수준인 GDP대비 1% 수준까지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학별로 학생들의 취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지원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여섯째, 학벌사회를 타파하여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스펙을 쌓기 위한 공부와 취업을 위한 공부를 별도로 준비함으로써 불필요한 교육비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모든 직종에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표준화하여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290여개가 개발되어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을 완료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출신학교나 지역에 관계없이 직무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차별받지 않도록 직무능력평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직무능력평가제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준공기업 및 민간으로 확대하도록 장려하겠습니다.

일곱째,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산업별 전문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특성화고, 전문대학에 진학하고 싶어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분위기 때문에 포기하고 있습니다.

직업교육체제를 내실화하고 전문화하여,
일찍부터 자신의 꿈과 끼를 살려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로 만들겠습니다.

대학을 안가도 대접받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겠습니다.
고졸 취업자에게 추가적인 학습기회를 드리기 위해
원하는 사람은 100% 학위 취득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비 해외 유학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능·기술 보유자, 산업체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기술 명장 대학원’ 과정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여덟째,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인생후반기 제2의 직업생활 및 행복한 여가를 위해
평생교육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경력단절 여성, 은퇴 이후 중고령자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이버세상에서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해 어르신 친화형 애플리케이션을 보급해
서,

자신의 축적된 전문성과 인생경험을
필요한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교육에 대한 비전과 실천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교육은 최고의 성장정책이자, 복지정책입니다.

오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한 교육,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행복한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